

80년 5월 도청앞 그 감동 '민주화 성회' 재현

통일로 가는 용서와 화해의 행진

1980년 5월 16일 오후 3시, 도청 앞 광장에 모인 인파는 5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제3차 민족민주화성회가 시작됐다. 연이은 시위와 피로에도 불구하고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생애 마지막 군중 연설로 시민들을 사로잡는다.

고 어두워진 광주거리를 물결쳐 나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감격했고 민주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향한 열망과 애정에 들떴다. 이날의 감동이 있었기에 광주는 공수부대의 총경 작전 만행에 대해 부·마사태에서처럼 단박에 진압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본보 1996년 3월11일자 '5·18 광주항쟁사' 중>

27년이 흐른 18일 오후 3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 광장에선 '민족민주화 성회(聖會)'가 재현됐다. '광주주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양철호 동신대교수)가 주관한 기념식이 끝나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 본부장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80년 5월의 처절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5·18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위기의 한국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붓을 들어 대형 현수막에 '5·18의 송고'라고 썼다. 행진이 시작됐다. 선두는 '그날'처럼 대형 태극기와 현수막이 이끌었다. 행렬은 민주의 종각을 출발해 옛 광주은행~전남여고~옛

노동청으로 이어졌다. 행진 도중 시민들은 서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께안아 주는 등 이념이나 말보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광주의 용서' '광주의 화해'를 몸짓으로 보여줬다. 5월 그날 현장을 지켰던 선배들은 5·18을 경험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손을 이끌었다. 세대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와 통일, 세계평화'를 함께 구현하자라는 '5월의 다짐'이었다. 행진은 2시간여만인 오후 5시에 끝났다. '성회'를 재현한 참가자들은 한복소리로 힘껏 외쳤다. "민주주의 만세, 남북통일 만세, 세계평화 만세!" /오광복기자 krah@



광주민주항쟁 27주년인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 앞에서 재현된 '민주성회'. 500여 명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통일' '세계 평화'를 외치며 금남로 일대를 행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980년 5월16일 전남대·조선대 총학생회와 교수들이 '민주성회'를 마치고 금남로를 행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구벌 고교생 24명이 열흘 동안 230km를 걸어 광주에 도착. 5·18 민주항쟁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로 들어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구지역 고교생 100명 10일간 585리 걸어 참배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18일 5·18 제27주년 기념식에 왔다.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온 게 아니라, 굽이굽이 산길 585리(230km)를 걸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지리산 자락의 국도를 따라 꼬박 10일 걸렸다. 하루 6시간의 강행군에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얼굴은 발갛게 타지만, 광주에 대한 오랜 '마음의 빛'을 담은 것 같아 표정들이 밝았다. 광주에 온 학생들은 대안학교인 대구 달구벌 고교생 24명, 필수과목인 '여행' 수업에서 '대구에서 광주까지 5·18 국토행진'을 계획, 27주년 행사에 맞춘 것이다. 학생들은 고령·거창·함양·남원·순천·담양을 거치는 동안 영호남이 '물'이 아니라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쉽게 오기 힘든 곳이라 생각해 끝까지 참여해 보고 싶었습니다. 광주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았어요."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참배를 마친 2학년 이원재(18)군은 "광주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암울할 줄만 알았던 묘역 분위기가 밝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으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성진(18·뇌병변1급 장애)군은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걸을 수 있었다"면서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인데 5월 영령들처럼 정의로운 사람들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학생들은 전날 밤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 중 '모두 시민군이 됩시다'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으며, 기념식 직후 버스 편으로 대구로 돌아갔다. 학생들을 인솔한 윤삼욱(36)교사는 "아이들이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원침 (7213)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브로커 통해 사건 수임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추징금 2억8천만원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18일 법률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 파산사건을 소개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고법원장 출신 이모(67)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8천32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인신하면서 수임사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개인파산 브로커 조지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00건에 걸쳐 개인 파산 사건을 맡아 사건당 20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는 등 모두 14억원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反FTA 시위 소송 공공기관 손 들어줘 광주·전남경찰청 손배소 '관심'

한미 FTA 반대 지지 시위와 관련, 공공기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시와 전남지방경찰청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일 한미 FTA 협상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허연·이하 운동본부) 등 43명을 상대로 2억3천31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이 소송을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에 배당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거쳤고, 오는 7월16일께 세 번째 변론준비를 가질 계획이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해 12월 중순께 운동본부 측의 폭력시

反FTA 시위 큰 충돌 없어 경찰 원천봉쇄...盧대통령 면담 무산

한미 FTA 반대 등을 주장하는 광주·전남지역 농민과 노동자들은 5·18 27주년 기념식에 앞서 18일 오전 9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의 면담을 요청하며 한때 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농민들은 경찰과 물차움을 벌이던 중 기념식이 끝나고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대통령 행렬을 확인하고 자신 해산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빈집털이범, 출동 경찰 차로 치고 도주 9시간만에 붙잡혀

빈집털이를 하려던 20대 절도범이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9시간 만에 붙잡혔다. 화순경찰은 18일 근무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도주한 최모(26·광주시 서구 상촌동)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7일 오후 1시20분께 화순군 화순읍 영남삼거리에서 용의 차량을 검문 중인 화순을 지구대 김모(38)경을 그랜저 승용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다. /최승호기자 css@kwangju.co.kr

주말·휴일 '화창' 업무 스트레스 공무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5·18 민주항쟁 27주년 행사기간 중 잔뜩 짜투리고 비가 내렸던 광주·전남의 날씨가 주말부터 활짝 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19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조금 끼겠고, 일요일인 20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햇살과 함께 한낮에는 기온이 20~26도까지 올라 다소 더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21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서해안 저지대 지역은 만조 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우기자 wool@kwangju.co.kr

경상도 출신 대통령 잘못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

'뉴라이트 경남연합'은 도덕성·투명성·나눔 및 공존적 정신 등 신보수(New Right) 운동을 추구하는 12개 단체의 협의체로, 회원 수는 5천여 명이다. 한편 '전두환(일해) 공인 반대 경남대책위'도 오는 2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대책위와 함께 삼보일배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민노총 노조원 차에 매단 채 경찰이 400여m 질주 '물'의 승강이 별이다 차 몰아

경찰관이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차량 지붕에 매달고 달려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목포 하구연둑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백모(50) 경사가 모 유희회사 노조원 이모(40)씨를 자신의 59나15 XX호 산타페 승용차에 매달고 400여m를 달렸다는 것이다. 백 경사는 해고 노동자에 대한 항의 선전전을 마치고 영암 방면으로 향하는 민노총 노조원들을 차량으로 뒤따르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노조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돌리자고 신변 확인을 요구하며 차량 백미러 등을 부수자 차량 지붕 위에 이씨를 매달고 400여m를 주선했다. 이씨는 백 경사가 인근에 있는 영암 대불 초소에 세우자 차에서 내렸

고물상 주인이 고물상 절도

○30대 고물수집업자와 종업원 등 2명이 다른 고물상에 침입, 물건을 훔쳐오다 경찰에 걸렸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K 고물상 주인 최모(33)씨는 직원 1명을 데리고 지난 2월 12일 밤 10시에 광주시 서구 마북동 박모(61)씨의 Y고물상에 들어가 중고 싱크대 5개 등 120만원 상당의 고물들을 3회에 걸쳐 훔쳐왔다고 신고 달아나 자신의 고물상에 숨겨두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고물수집을 위해 돌아다니던 중 유난히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발견하고 욕심이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피해자인 Y고물상 박씨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의 상도덕(商道徳)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라며 "최근 kg당 2천700원으로 오른 스테인리스 가격 때문에 물건을 훔친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ith regional weather icons and a table for the next 7 days.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813 회대단지!' (The center of the premium new city, the center of the privilege we have 3,813 times!).